

21세기 한반도 환경정책 보고서



〈한국의 환경비전 2050〉(박원훈 외 지음, 그물코간)은 먼저 2050년까지 세계의 흐름을 전망해보고 그 흐름 속에서 한국은 과연 어떠한

발전 단계를 거칠 것인지 한국의 국토, 생태계, 산업 등의 각 분야별로 그 정책과 전략들에 대해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이 책에 담긴 지속 가능한 발전 시나리오에 의하면 에너지 효율 상승,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활용 증가, 기술 친화적인 생산 구조, 과학 기술의 진보 등에 의해서 인류의 미래는 비교적 낙관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인구도 결국에는 안정되거나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권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환경의 질을 대폭 높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제적 여력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한다는 것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우리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이 크게 부족한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과학 기술의 발전만이 국가의 나아갈 길이며, 오로지 이를 통해서만 지속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과학 기술을 통한 환경의 보전, 환경의 질 개선, 자원의 절약, 새로운 자원의 발굴 등이 21세기 국가 환경비전의 핵심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국내 상황과 관련해서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하는 것이 남북 통일 문제이다. 남북한이 통일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기는

대략 20년 전후로 예상되고 있지만, 통일 국가로서 완전히 안정된 상태는 2050년에 이르러서야 가능할 것이다. 당분간 북한국 스스로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과거 3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북한의 환경 회복을 위해 나서야 한다.

우리 국토의 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해 21세기에 추진해야 할 긴요한 일로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백두대간의 보전, 국립공원의 합리적 관리 및 비무장 지대의 보전 등을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조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국제장기생태계연구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자연 생태계와 자연 환경 관리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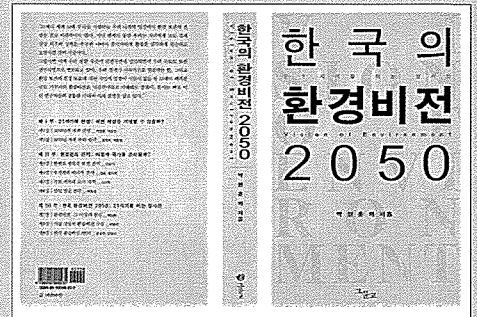
국토 생태 통합 네트워크의 구축과 관리 절실

또한 용수 부족 및 수질 문제의 혼란은 적어도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며, 그 이후부터는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수자원 확보 방안이 여러 시행 착오를 거쳐 정착하게 될 것이다. 수자원은 현재와 같이 지역 단위가 아니라 대유역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되어 관리될 것이다.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수자원 공급과 하수처리 문제도 하나로 통합되어 계획, 관리될 것이다.

에너지 측면에서 볼 때, 20세기가 원자력 발전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핵융합 발전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실용화의 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지만, 21세기 중반부터는 이 에너지의 본격 사용으로 인류가 무한 에너지 공급의 시대를 맞게 될 것을 기대해 본다.

우리 나라는 국토 환경 용량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적인 국토 관리가 요청된다. 21세기에는 국토를 구

성장이 반드시 자원을 소모하고 환경 오염을 부추기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많은 급진적 환경론자들은 성장 그 자체를 적대시 한다. 또한 미래는 생태적 세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21세기에도 인류는 보다 풍요롭게 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성하는 인위적 요소인 경제의 축에 생태계라고 하는 자연적인 요소를 조화시켜 국토의 잠재력과 환경 용량을 제고시키는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토 생태 통합 네트워크의 구축과 관리, 인구 과밀 지역과 과소 지역의 해소, 보전 지역과 개발 가능 지역의 관리, 자원·생태 정책의 마련, 환경 친화적인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정비 등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산업 구조가 선진화되고 국제화와 세계화가 더욱 강조되면서, 환경 친화적 산업 발전의 요구는 더욱 강조될 것이며 우리 산업계는 청정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특히 모든 산업 활동에서 환경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의 환경 산업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그 시장 규모도 기하 급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1세기는 자원소모와 오염이 적은 '신성장' 시대

미래의 기업 경영 여건은 오염자 부담 원칙의 확대·강화, 전 과정 책임주의 및 생산자 책임 확대, 자원 순환형 산업·경제 구조 정착, 환경 문제에 대한 금융 기관의 역할 확대 등으로 변화되어 갈 전망이다. 기업의 내부적 노력으로는 환경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경영 시스템의 구축인데, 예를 들어 조직의 그린화, 청정 생산 체제 구축, 친환경적·시장 경제적 경쟁 규범에 대비한 그린 마케팅 활동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지난 100년 동안 인간의 평균 수명은 연장되었으며 식량 생산 증가 등 많은 부분이 놀랄 만큼 개선되었다. 인류는 전에 없던 진보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지구의 모습은 많이 변화였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인류 문명을 위협한다

고는 할 수 없다. 더구나 성장이 반드시 자원을 소모하고 환경 오염을 부추기는 것은 아니다. '신성장' 시대에 접어든다는 것은 자원을 단순히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좋은 조합을 이룸으로써 더 크게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뜻한다.

성장이 반드시 자원을 고갈하고 환경 오염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면, 보다 좋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살펴봐야 할 사항이 있다. 최근 들어서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사전예방 원칙은 건전한 과학 이론의 입장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자칫하면 과학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 참여가 공공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모델로 발전하지 않고, 포퓰러리즘적 장치로 이용되는 경우 공공성을 달성하는데 실패할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성장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미래를 전망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많은 급진적 환경론자들은 성장 그 자체를 적대시 한다. 또한 미래는 생태적 세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21세기에도 인류는 보다 풍요롭게 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따라서 20세기에 이어 21세기에도 성장이 승리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다만 21세기의 성장은 자원소모와 오염이 적은 신성장이 될 것이다.

21세기의 환경정책은 경제적인 측면이 두드러질 것이고,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할 것이다. 환경규제 문제 역시 점차 지방화할 것이다. 아울러 많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이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변화와 조짐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겸허한 자세로 긍정적으로 대처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㉞

글_이용수 | 과학독서이카데미 회장